

故 안형식 교수님 추모심포지엄

(고)안형식 교수 추모사

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박순우

지난 5월 3일 안형식 교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부음을 받았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. 어찌 된 영문인지 윤석준 교수님께 바로 연락해 봤는데, 그동안 우환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어 죄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

안형식 교수님은 우리에게 코크란이란 이름과 근거중심이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해 주시면서 우리나라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신 분입니다. 예방의학이라는 학문 내에서도 분야가 매우 다양하지만,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방의학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축을 맡아 그 분야를 정립하였습니다. 평생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해서 잘 마무리하고, 예방의학의 선배로서 후진을 이끌어가야 할 시점에 너무나 일찍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은 예방의학의 큰 손실이자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개인적으로 저와 안형식 교수님은 예방의학 전문의 동기입니다. 전공의 시절의 안형식 교수님은 온화한 웃음과 상대방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소탈한 인품으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.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안 교수님과 대학을 같이 다닌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. 실력과 노력, 그리고 인품까지 갖춘 천생 학자이자 교수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. 전문의 취득 후 전공이 달라 업무적으로 함께 할 기회는 적었지만 수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안 교수님의 활약상을 듣고 있었습니다. 예방의학 동기로서 항상 자랑스러웠고 한편 부럽기도 하였습니다. 특히 우리 예방의학의 많은 선배 교수님께서 쌓아놓으신 업적을 우리 세대에서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더욱이 그러하였습니다.

안형식 교수님께서 비록 짧은 생으로 마감하셨지만,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 교수님을 기억하는 많은 동료와 후진이 계십니다. 비록 물리적으로는 안 교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, 지금 분명히 어디에선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형식 교수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, 안 교수님이 이끌어주신 후배와 제자 분들께서 안 교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큰 대들보로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희망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안형식 교수님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.

감사합니다.